

'5·18 발상지' 전남대서 尹 탄핵 찬성·반대 동시 집회

전남대민주동우회 등 9개 단체 '내란 옹호 극우단체 집회 반대' 기자회견 아름 가진 광주를 정쟁 도구로 악용...물리적 충돌 없었지만 정적 등 소란도

'5·18 민주화운동의 발상지' 전남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성향 종교 단체가 지난 15일 '5·18 성지'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탄핵 찬성 집회에 맞붙을 농성 2주도 안 돼 비슷한 취지의 집회가 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5·18 아픔을 가진 광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이 몰려와 광주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는 전남대민주동우회 등 9개 단체가 '내란 옹호 극우단체 전남대 집회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서울지방법원 폭동, 전한길과 종교단체를 앞세워 금남로를 더럽혔던 2월 15일 폭거에 이어 금남로는 주말마다 극우 유투버들의 밤발리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에서도 일부 학생들과 극우 유투버들이 집회를 예고하며

민주항쟁 발원지인 전남대를 더럽히고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선거 논리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궤변에 불과하며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계엄을 정당화하고 싶은 공색한 말 뿐"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연신 "전남대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릴레이 발언에 나섰다. 이를 본 일부 전남대학생들은 머리 위로 박수를 치며 지나갔고 "하이팅"을 외치며 응원하기도 했다.

전남대 사학과 박찬우씨는 "수많은 열사들의 혼이 서려있는 전남대에 내란수와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학우들과 시민들을 짓밟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매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남대에 나라를 팔아먹는 미국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집회 현장 건너편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남대 학생들과 유투버 등은 준비해 온 태극기와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남대 재학생 12명과 졸업생 5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와 성조기 등을 꺼내 흔들었고 스타렉스 방송 차량 위에 올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박지원(25·

전남대 자율전공학부)씨는 "탄핵안 가결로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통령의 부재로 국가 안보를 위협받고 있으며 국회는 공수처로 불법영장을

청구하고 무차별적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법 연구회 소속으로 신뢰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 선거 개입 의혹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거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강화하고 투표시스템에 중국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 경북대의 고수현씨도 이날 시위 현장을 찾았다. 고씨는 "경북대가 먼저 시국선언을 했고 전남대 학우분들이 뜻을 같이 해 주셔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해 광주를 찾았다"며 "중국의 사주를 받는 반국가세력은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화여대 시위 현장처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다행히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도중 도로를 지나던 차량 등이 보수단체를 향해 연신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리고 쓴소리를 하는 등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3개 중대 등 총 220여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건립 탄력 받나

민주당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옛 신안파크 부지 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사천) 국회의원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을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넣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대미술관은 수도권 과점관·특수공관·서울관, 중부권 청주관과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 진주관(지나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예산 반영) 등 호남권을 제외한 권역에 설치됐거나 추진 중이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자원하고 꾸준히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통



해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북에선 도의회를 중심으로 '현대미술관 분원 전북 유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양 매화·순천 탐매...남도 축제로 봄 만끽

3월이다. 임축한 겨울을 밀어내듯 어김없이 찾아온 봄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다. 하얀 매화꽃, 노랗게 늘어지는 개나리, 산수유, 벚꽃 등으로 화려해지는 남도 들녘을 보고만 지나치기는 아쉽다. 주말엔 한 걸음 내디뎌 봄 탐매 나가기다. 봄꽃 명소에서 인증샷 찍고 입맛 돋구는 음식과 디저트 즐기다 보면 봄이 짧다.

매화는 남도의 봄을 맨 처음 알리는 전령. 광양 매화마을이 대표적 명소다. 올해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화마을 일대에서 '한국의 봄, 광양 매

화마을에서 열다'를 주제로 열린다. 굳이 봄 맞이 여행객이 얼마나 많은 지 체감하고 싶다면 축제일에 맞춰 찾은 게 좋다. 한 번 가 본 여행객이라면 개화 시기를 알아본 뒤 축제일 전에 미리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순천에서는 흥매화를 즐길 수 있는 '탐매축제'가 오는 7일부터 매곡동 탐매회광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2일 예정됐던 행사였지만 우천 예보로 7일로 늦춰졌다. 매화꽃 만들기, 매화 소원 바람개비 만들기, 매화 그리기 등 체험행사와 주민들이 내놓는 제

품들로 꾸러진 플라마켓도 볼만하다.

해남 달마산(해발 489m)을 중심으로 미황사에서 시작해 큰바람재-노지랑골-물고리재를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달마고도(달마산-돌래길) 트레킹 코스는 지금 딱 체험하기 좋은 시기다.

완도는 올해를 '완도 방문의 해로' 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3월부터 여행객들 발길 붙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봄 여행지 청산도 여객선을 받았으므로 탈 수 있고 청산해양치유공원(30% 할인), 운산도 유적지(50% 할인) 등도 할인받고 이용할 수 있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3월 22일부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교수 '尹 옹호글' 시끌

다른 교수들 비판 잇따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가 온라인 교내 교수전용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대 내부 교수 포털 자유의견방에 '시국선언문 "하늘이 무너져도 정치는 새워라!"'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이 글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올린 것이다.

A교수는 게시글에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이다. 국회의 위법한 기만적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당장 각하(却下)하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棄却)하라. 검찰은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발본색원하며, 관련자

를 엄중히 문책 단죄하라"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본질은 '부정선거'로 귀결한다"면서 "부정선거는 진보나 보수, 좌우의 같은 진영 문제가 결코 아니며, 이는 국민주권을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추신으로 덧붙였다.

이어 "죄는 미워되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며, 행위를 판단하되 행위자 인간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현들은 가르쳤다"면서 "물론 윤 대통령의 통치방식과 행위들이 현대 민주시민의 수준에 미흡하여 불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탄핵의 사유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전남대 다른 교수들의 비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남대 교수는 "A교수는 평소에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야기 해왔다"면서 "A교수의 주장은 전남대 교수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정원 "북, 러시아로 추가 파병...규모 파악 중"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정확한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며 "북한군이 약 한 달간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사상자가 대거 발생해 전선에서 물러났다는 관측이 나왔던 북한군이 추가 병력 도착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투에 다시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운송료, 차용증
거래장부, 계약서, 입금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합병공고

(제3자 이익의 제출 공고)

광양로공업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신우기술(을)은 2025년 2월 20일 개최한 각각의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제출일(2월 27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 등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갑) 광양로공업 주식회사
광양시 오류로 40(중동)
대표이사 김규환

을) 주식회사 신우기술
광양시 오류로 110(중동)
사내이사 진이태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광경희(610309-2XXXXXX)
• 최후주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상대2길 7, 101동 706호(무안한아름골드아파트)

피상속인 망 광경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5년 단10045호로 신청하여 2025년 2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아니하시기를 주의하며, 신고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28일

• 상속인: 송아연(870217-2XXXXXX)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2길 20, 2층 206호(구교리, 서림맨션)

• 신고기간: 2025. 2. 28. ~ 2025. 5. 10.
• 채권신고처: 상속인 송아연의 주소

내과 가정의학 일반의 이비인후과

개업원장님모심

병원급 개원도 가능
10년 내과원장 3명 운영, 임대종료.

군산 중심가
롯데마트 앞

주차완비, 2층 190py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특자와 함께 읽은 김 73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